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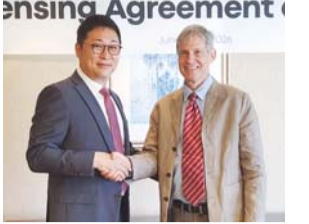


더본코리아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니



Life

국소부위
지방분해주사
마이크로 뷰티 격돌
L2



소외된 곳부터 촘촘하게... 기술과 마음 잇는 '행복망'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코스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공헌도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의 본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로 진화하고 있다.

코스콤은 'IT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기술기업의 전문성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ESG 활동을 확대 중이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은 ▲'IT's 희망 ▲'IT's 이웃사랑 ▲'IT's 글로벌 ▲꿈나무 장학사업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코스콤의 사회공헌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사람 곁으로 직접 다가가는 일'에서 시작된다.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부터 장애인 IT 창업 지원,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까지 기술과 사람을 잇는 사회공헌을 통해 금융 IT 기업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다.

◆참여가 만든 변화...임직원이 만드는 ESG

코스콤은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코스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코스콤이 올해 추진 중인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스콤은 매달 본부별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월 영등포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진행한 배식 봉사와 후원금 전달도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 중 하나다.

사내 동호회 활동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인공와우 기기 착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인공와우 머리망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당시 코스콤 사내 뜨개 동호회 '뽀자락 뽀자락'과 연계해 진행했으며, 동호회 회원들이 제작 방법을 안내하면서 일반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동호회 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신승환 코스콤 경영리스크관리부 부서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생활 속 상생 이어간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꾸준히 다.

코스콤은 희망드림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빨래방·공유주방·교육실 등 공동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부산시 동구 희망드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



코스콤 임직원들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임직원 참여 확대 '1본부 1봉사활동' 무료급식소 찾아 봉사, 후원금 전달 청각장애 아동에 인공와우 머리망 인공와우 기기착용 돕는 머리망 제작

지역 취약계층 위한 공동시설 확충 빨래방·공유주방 등 생활밀착형 지원 국가유공자,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열어 경제적 자립 돕고 창업지원체계 강화

구지원봉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앞서 동구 지역 마을회관 네 곳에 빨래방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탈북민,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15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공헌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쌓은 바 있다.

또한, 당사 사업장이 위치한 안양시에도 '희망드림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저소득 주민 110명에게 냉감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구에도 올해 8월 영등포구지원봉사센터와 협력해 골목길과 대로변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10곳에 4인용 유모차를 지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부산 지역 내 고품화

1 (왼쪽부터)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2025 코스콤 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전달식'에서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코스콤 임직원들이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인공와우 머리망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빨래방·공유 주방·교육장 등 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는 임직원 60명과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코벨소 서식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단순한 환경정화가 아니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사회공헌의 의미를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5월에도 폭 넓은 활동이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해 직원 41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코스콤은 매년 현충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 홀몸 어르신 525명을 위한 보양식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홍석원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IT로 더 나은 내일을...디지털 사회공헌

코스콤의 사회공헌은 봉사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 IT 인프라 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어온 중증장애인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코스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IT 보조기기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IT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코스콤은 푸르메재단과 함께 '제3기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추진하며 총 70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2000만원 확대한 규모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다.코스콤은 앞서 1·2기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 채용 플랫폼, 자동 점역 서비스, 화기 질한 유전자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창업팀을 지원해 왔으며, 일부 팀은 매출 달성, 특허 등록, 해외 진출 협업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스콤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사 특성을 살린 IT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코스콤은 전국지역아동센터 대상 나눔플러스 I-ON 플랫폼 구축 지원, 다문화가정 취업교육, 경력단절 여성 IT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IT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코스콤은 기술과 사람이 연결될 때 비로소 ESG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철학을 통해 'IT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처럼 32강 좌절된 스코틀랜드... "타탄 아미는 최고, 대표팀은 최악"
▲경찰, '홍명보 선임' 축협회장 수사 2년째... 고발 8건 접수 /사진 뉴스시스

▲한국, FIFA 랭킹 32위까지 추락...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이강인, 스페인 매체 조별리그 베스트11 선정... 32강 탈락 국가 중 유일

▲'최악 성적표' 홍명보호, 32강 실패에도 포상금 총액 20억8000만원
▲홍명보 감독 사퇴에 외신도 주목... "대회 전부터 신뢰 얻지 못해"